

한반도 평화지수,
긴장 고조 상태 속 개선 기대감 높아

2011. 5.

목 차

■ 한반도 평화지수, 긴장 고조 상태 속 개선 기대감 높아

I. 2011-1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1
II. 남북 관계 현안 설문 조사 결과	6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 개요	11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12
< 부록 3 >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3

Executive Summary

□ 한반도 평화지수, 긴장 고조 상태 속 개선 기대감 높아

(종합 평가) 2011년 1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북한이 추가 도발 없이 대화공세를 지속함으로써 상승세로 반전되어 천안함 침몰 사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7.4p 상승한 32.4를 기록함으로써, 천안함 사건 발발 직전인 2010년 1분기 29.9보다도 2.5p 높게 나타났다.

한편, 2분기의 기대지수도 2009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의 2011년 2분기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지수는 1분기 36.5보다 8.1p 상승한 44.6을 기록함으로써 2분기에는 남북 관계가 '긴장 고조 상태'를 벗어나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로 진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중국의 3단계 6자회담 재개 방안 제의에 의한 남북한 비핵화 회담을 비롯하여, 카터 방북과 미국의 대북 식량 재개 가능성 등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특징) 2011년 1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를 조사한 결과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주관적·객관적 지수 모두 상승했으며, 특히 주관적 평가가 객관적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실적 자료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34.5에서 41.3으로 6.8p 상승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인식과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전문가평가 지수도 지난 분기 15.4에서 23.4로 8.0p 상승하였다. 한편, 2011년 2분기 기대지수는 천안함 사건 직전의 2010년 1분기의 기대지수 30.4보다도 14.2p나 높아, 전문가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관적 평가(23.4)와 객관적 평가(41.3) 간의 격차는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현 상황을 실제보다 여전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항목별로는 전문가평가지수는 천안함 사건 이전 수준의 '긴장 고조 상태'로 개선되었으며, 정량분석지수도 이벤트 지수 상승에 힘입어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벤트지수는 군사실무회담 개최되어 한동안 중단되었던 당국 간 회담이 이루어지고, 남하한 북한 주민을 송환하는 등 정치·군사 분야에서 긴장 고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지난 분기 32.8에서 48.0으로 15.2p의 큰 폭 상승을 보였다. 반면 교류지수는 방북 인원과 남북교역액 등 전반적 교류 지표 하락으로 36.2에서 34.6으로 1.6p 하락하였다. 이는 5.24 대북 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어 민간의 남북교역 및 사회문화교류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성향별 평가에 있어서는 모든 성향의 전문가들이 남북 관계가 지난 분기보다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진보 성향의 평가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전문가평가지수는 각각 22.0, 26.5, 19.0을 기록해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7.0p, 0.8p, 10.1p 상승하였다. 이는 천안함 사건 발발 직전시기인 2010년 1분기의 19.0, 15.0, 15.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다음 분기의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지수도 성향에 관계없이 현재의 전문가평가지수보다 월등히 높아, 최근 미중 등 주변국들의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의 현재 평가지수와 2분기 기대지수가 여전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이들은 현재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며 기대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계 현안과 과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개최와 인도적 지원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올해 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입장(60.2%)을 보였으나, 실제로 올해 내에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24.7%로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상회담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남북 상호간의 불신과 정부의 경직적인 정책 운영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의 유연한 정책 운영의 필요함을 방증하고 있다.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도 '의제에 관계없이 우선 만나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40.0%로 가장 높았다. 최근 북한이 금강산 관광의 현대아산 독점권 취소를 발표한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는 다수의 전문가들(63.7%)이 대화를 통한 해법 논의와 관광 재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계개선과 관광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제스민 혁명'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77.5%)이 '지도층에 불안감만 가져오는 정도로 체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은 중동에 비해 훨씬 더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의견(45.5%)과 '북한은 강력한 군부체제로 중동에 비해 사회통제가 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28.8%)이 가장 많았다.

남북 관계 개선 방안으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정치·군사 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조속한 6자회담 재개 추진을 강조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방북 제한 조치의 해제 및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1. 2011-1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종합 평가) 1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북한이 추가 도발 없이 대화공세를 보임으로써 상승세로 반전되어, 천안함 침몰 사건 이전 수준으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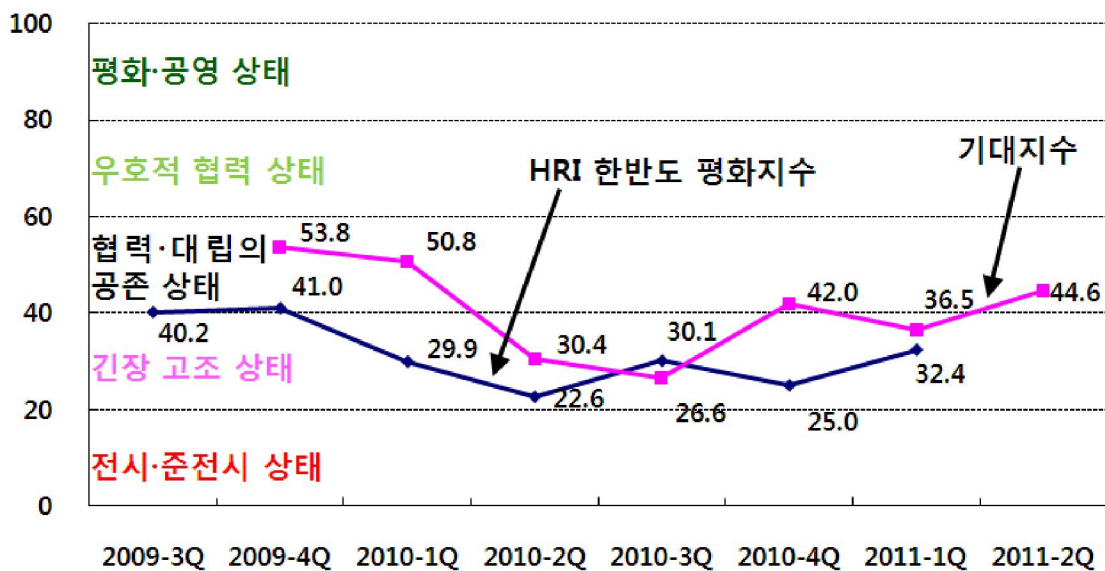
- 1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32.4를 기록하여, 천안함 사건 이전 시기인 2010년 1분기 29.9보다도 2.5p 높게 나타남

· 4분기 25.0을 기록했던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7.4p 상승한 32.4를 나타냄으로써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의 긴장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보임

- 기대지수도 2009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의 2011년 2분기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2분기 기대지수는 44.6로 나타나 2분기에는 남북 관계가 '긴장 고조 상태'를 벗어나,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

< 2009~2010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추이 >



○ (특징 분석) 주관적·객관적 지수 모두 상승했으며, 특히 주관적 평가가 객관적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호전

- 1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3.4, 정량분석지수는 41.3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분기보다 모두 상승
 - 지난 분기 감소했던 전문가평가지수는 1분기에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며, 정치·군사 부문 이벤트 지수도 32.8에서 48.0으로 큰 폭 상승하였음
- 전문가들의 기대지수는 천안함 사건 이전인 2010년 1분기의 30.4보다도 14.2p나 높아 전문가들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이는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제시한 '남북 수석대표회담 → 북미접촉 → 6자회담'의 단계적 접근법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민간 협의 등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감 고조에 의한 것으로 보임
-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간 격차는 여전하여, 전문가들이 현 상황을 실제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여전
 -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평가인 실적치로 보는 정량분석지수 사이의 격차(전문가평가지수 - 정량분석지수)는 -17.9로, 지난 분기의 -19.1과 비슷한 수준 유지

< 2009~2011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이벤트지수 교류지수		
'11-1분기	32.4 (▲7.4)	23.4 (▲8.0)	41.3 (▲6.8)	48.0 (▲15.2)	34.6 (▽1.6)	44.6 (▲8.1)
'10-4분기	25.0 (▽5.1)	15.4 (▽15.0)	34.5 (▲4.7)	32.8 (▽2.1)	36.2 (▲11.6)	36.5 (▽5.5)
'10-3분기	30.1 (▲7.5)	30.4 (▲19.5)	29.8 (▽4.6)	34.9 (▲1.6)	24.6 (▽10.8)	42.0 (▲15.4)
'10-2분기	22.6 (▽7.3)	10.9 (▽5.6)	34.4 (▽8.9)	33.3 (▽9.5)	35.4 (▽8.4)	26.6 (▽3.8)
'10-1분기	29.9 (▽11.1)	16.5 (▽17.0)	43.3 (▽5.2)	42.8 (▽6.5)	43.8 (▽3.9)	30.4 (▽20.4)
'09-4분기	41.0 (▲0.8)	33.5 (▽7.0)	48.5 (▲8.7)	49.3 (▲1.2)	47.7 (▲16.2)	50.8 (▽3.0)
'09-3분기	40.2	40.5	39.8	48.1	31.5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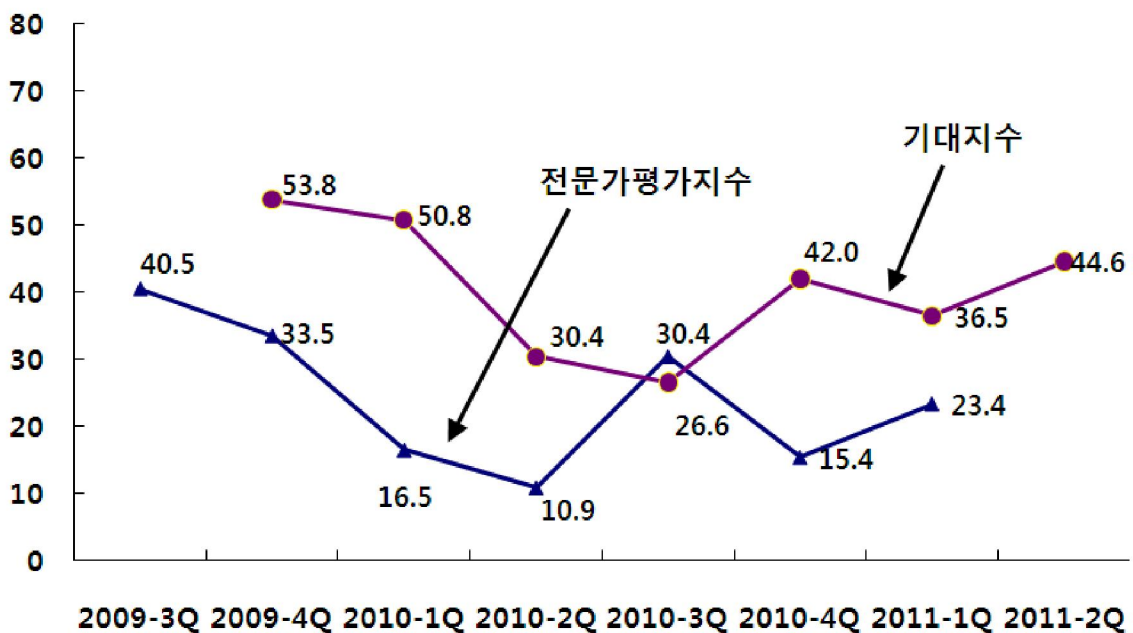
주 : ()내는 지난 분기 대비 증감을 표시(p)

○ (항목별 평가) 전문가평가지수는 천안함 사건 이전 수준의 '긴장 고조 상태'로 개선되었으며, 정량분석지수도 이벤트 지수 상승에 힘입어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로 진전

(1) 전문가평가지수 (2010년 4분기 : 15.4 → 2011년 1분기 : 23.4)

- 총 73명의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의 '전시 및 준전시' 상태에서 '긴장 고조' 상태의 초기 수준으로 진입
 - 1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8.0p 상승한 23.4를 기록하면서, 천안함 사건 이전인 2010년 1분기 16.5보다도 6.9p 상승
 - 이는 미중정상회담에서의 남북대화 촉구,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및 남하한 북한 주민의 송환 등 남북 당국간 대화가 일부 진행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8.1p 상승한 44.6를 기록하여, 전문가들은 2011년 2분기의 남북 관계가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기대지수의 상승은 카터 방북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표회담 및 한미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가능성 등으로 남북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듯함

< 2009~2010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



(2) 정량분석지수 (2010년 4분기 : 34.5 → 2011년 1분기 : 41.3)

- 1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34.5보다 6.8p 상승한 41.3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정량분석지수 상승은 경제·사회·인도적 지원 부문의 '교류 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 부문의 '이벤트 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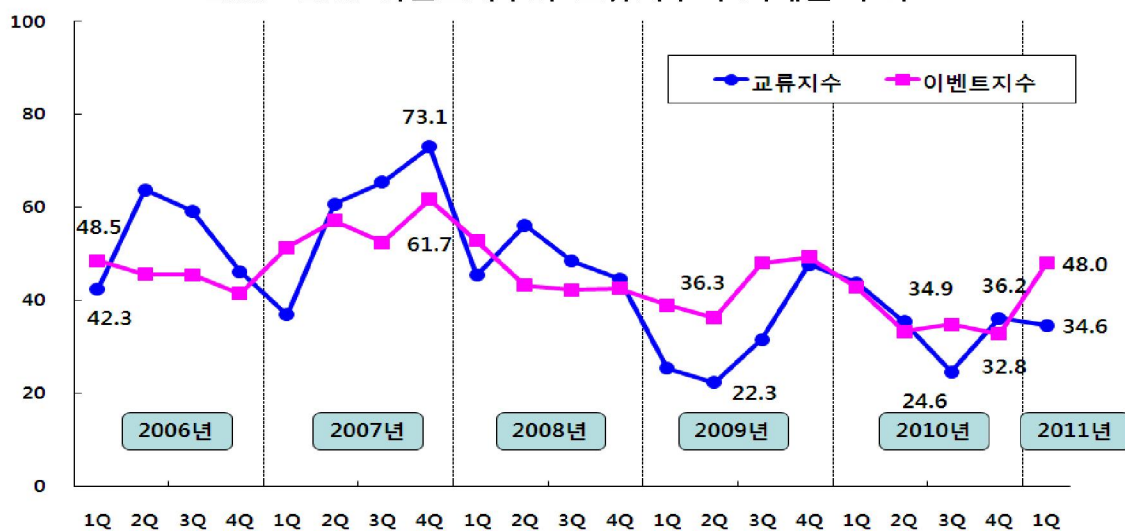
① 이벤트지수 (2010년 4분기 : 32.8 → 2011년 1분기 : 48.0)

- 이벤트지수는 북한의 대남 도발 자제와 지속적 대화 공세, 6자회담에서의 UEP 논의의 시사 등으로 전분기에 비해 15.2p나 큰 폭 상승되었음
- 이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남 대화 공세를 보인 것과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남하한 북한 주민 27명 송환 조치 등 남북간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는 사건 없이 1분기가 지나간 때문임

② 교류지수 (2010년 4분기 : 36.2 → 2011년 1분기 : 34.6)

- 교류지수는 전기 대비 1.6p 하락한 34.6을 기록하여,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직후인 2분기(35.4)와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렀음
- 이는 정치·군사 부문의 일부 대화 재개 속에서도 5.24 대북 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어, 민간의 남북교역과 사회문화교류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임

< 2006~2010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 (성향별 분석) 성향 구분없이 모든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보다 남북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진보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가장 많이 상승

-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22.0, 26.5, 19.0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7.0p, 0.8p, 10.1p 상승하여 긍정적 평가로 반전
 - 지난 분기에 연평도 도발로 악화되었던 전문가평가지수가 천안함 사건 이전 (2010. 1분기)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개선
-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의 전문가평가가 가장 큰 폭 상승
 - 그러나 여전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이들이 현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다음 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는 중도 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향 구분없이 기대지수는 현재 평가지수보다 모두 높게 나타남
 - 기대지수는 중도 성향과 진보 성향은 각각 2.3p, 10.2p 상승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낸 반면, 보수 성향은 지난 분기에 이어 연속 하락하였음
 - 이는 진보 전문가들이 중국의 중재와 카터 방북 등에 의한 남북 대화 가능성과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에 이은 남한의 지원 재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또한, 기대지수는 성향에 관계없이 현재의 평가지수보다 월등이 높아, 최근 미중 등 주변국들의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기대지수	HRI 평화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1. 1분기	22.0 (▲7.0)	43.0 (▽2.4)	26.5 (▲0.8)	53.3 (▲2.3)	19.0 (▲10.1)	38.9 (▲10.2)	23.4 (▲8.0)	44.6 (▲8.1)	32.4 (▲7.4)
'10 4분기	15.0 (▽18.6)	45.4 (▽1.3)	25.7 (▽4.6)	51.0 (▲10.2)	8.9 (▽20.5)	28.7 (▽10.0)	15.4 (▽15.0)	36.5 (▽5.5)	25.0 (▽5.1)
'10 3분기	33.6 (▲20.6)	46.7 (▲15.7)	30.3 (▲20.8)	40.8 (▲18.4)	29.4 (▲18.6)	38.7 (▲9.3)	30.4 (▲19.5)	42.0 (▲15.4)	30.1 (▲7.5)
'10 2분기	13.0 (▽6.0)	31.0 (▽0.3)	9.5 (▽4.5)	22.4 (▽8.2)	10.8 (▽5.0)	29.4 (▲0.6)	10.9 (▽5.6)	26.6 (▽3.8)	22.6 (▽7.3)
'10. 1분기	19.0 (▽20.7)	31.3 (▽20.1)	15.0 (▽15.5)	30.6 (▽24.0)	15.8 (▽13.9)	28.8 (▽20.0)	16.5 (▽17.0)	30.4 (▽20.4)	29.9 (▽11.1)
'09. 4분기	39.7 (▽10.5)	51.4 (▽6.2)	30.5 (▽7.6)	54.6 (▲0.2)	29.7 (▽8.1)	46.8 (▽4.9)	33.5 (▽7.0)	50.8 (▽3.0)	41.0 (▲0.8)
'09. 3분기	50.2	57.6	38.1	54.4	37.8	51.7	40.5	53.8	40.2

2.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 (남북정상회담 걱정시기)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올해 내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

- 전체 73명의 전문가 중 약 60.2%가 올해 내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고 응답
 -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7.1%를 차지하였으나, '현 정부 임기내에는 할 필요 없다'는 응답도 20.5%에 달함
- 특히, 현정부의 지지층인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가장 많은 비율(52.2%)로 응답
 - 이는 천안함·연평도 및 북핵 등의 각종 현안들을 한꺼번에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결단의 시급함을 방증함

남북정상회담 걱정시기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올 상반기 내에 이루어져야	12.3%	4.3%	15.6%	16.7%
올 하반기에는 이루어져야	47.9%	52.2%	43.8%	50.0%
내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져야	1.4%	4.3%	0%	0%
내년 하반기에는 이루어져야	5.5%	8.7%	3.1%	5.6%
현 정부 임기 내에는 할 필요 없음	20.5%	21.7%	21.9%	16.7%
잘 모르겠음	12.3%	8.7%	15.6%	11.1%

○ (남북정상회담 예상시기) 현 정부 임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응답자의 48.0%로 절반을 밑돌고 있음

- 예상개최시기는 올 하반기(24.7%), 내년 상반기(11.0%), 내년 하반기(12.3%) 등 현 정부 임기 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48.0%를 차지
 -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개최 가능성 없다'는 비관적 응답자도 39.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남북정상회담 예상시기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올 상반기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음	0%	0%	0%	0%
올 하반기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음	24.7%	21.7%	18.8%	38.9%
내년 상반기 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음	11.0%	17.4%	9.4%	5.6%
내년 하반기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음	12.3%	17.4%	9.4%	11.1%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개최 가능성 없음	39.7%	30.4%	50.0%	33.3%
잘 모르겠음	12.3%	13.0%	12.5%	11.1%

○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 종합) 상당수의 전문가(60.2%)들이 올해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면서도, 연내에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24.7%로 비관적으로 전망

- 이는 정상회담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이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남북 상호간의 불신과 정부의 경직적인 정책 운영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는 정부가 대북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야 함을 방증하는 것임

○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의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의제에 관계없이 우선 만나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 전체 전문가 중 40.0%는 '의제에 관계없이 우선 만나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
-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핵문제에 대한 우선 순위에는 어느 한 주제만이라도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35.7%를 차지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의제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의제에 관계없이 우선 만나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	40.0%	28.6%	35.5%	61.1%
핵문제가 우선 의제가 되어야 함	18.6%	28.6%	19.4%	0%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사과 및 재발 방지가 우선 의제	17.1%	14.3%	22.6%	27.8%
현 시기에 만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음	21.4%	19.0%	22.6%	11.1%
기타 : 핵문제와 천안함·연평도 사과 및 재발 방지 모두를 의제로 삼아야	2.9%	9.5%	0%	0%

○ (북한 후계체제 안정성)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지위는 획득하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

- 한편, 2010년 3분기 조사에서도 63.8%의 전문가들이 3대 세습 체제가 '당분간 안정되나,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시 곧 불안에 빠질 것'이라고 응답

북한 후계체제 안정성	종합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안정적 진행, 김정은 권력 완전히 장악할 것	7.1%
김정은 후계자 지위 획득,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	81.4%
주민들의 저항 등 정권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것	10.0%
기타 : 김정일 위원장 생존 기간에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나, 김 위원장 유고시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	1.4%

○ ('재스민 혁명'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다수의 전문가들은 '재스민 혁명'이 북한의 3대 세습 장기집권 체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

- 전체 전문가들의 77.5%가 '지도층에 불안감만 가져오는 정도로, 체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
- 또한, '발생하더라도 소규모 생계형 시위에 불과할 것'(18.3%)이라고 응답
-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이 체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의 일부 전문가들은 소규모 생계형 시위의 발생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재스민 혁명'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지도층에 불안감만 가져오는 정도, 체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77.5%	59.1%	84.4%	88.2%
발생하더라도 소규모 생계형 시위에 불과할 것	18.3%	36.4%	12.5%	5.9%
실질적 시민혁명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	1.4%	0%	3.1%	0%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권력엘리트들이 동조하여 정권 붕괴	1.4%	0%	0%	5.9%
기타 : 전혀 영향 없음	1.4%	4.5%	0%	0%

- 북한 체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그 주요한 원인으로 북한이 중동에 비해 훨씬 더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
-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는 이유로 ‘북한은 중동에 비해 훨씬 더 폐쇄적인 사회’(45.5%)라는 것과 ‘북한은 강력한 군부체제로 중동에 비해 사회통제가 심하기 때문’(28.8%)이라는 것을 주로 지적

‘재스민 혁명’이 북한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	종합
북한은 중동에 비해 훨씬 더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	45.5%
북한은 강력한 군부체제로 중동에 비해 사회통제가 심하기 때문	28.8%
북한은 조직적인 시민사회와 저항의 역사가 없기 때문	12.1%
이웃나라 중국에 재스민 혁명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	10.6%
기타 : 대안 세력의 부재, 외부 세력의 도움 부재	3.0%

○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한이 금강산 관광의 현대아산 독점권 취소를 발표한 것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화 분위기 조성 및 관광 재개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재개 노력을 촉구

- 다수의 전문가(63.7%)들은 정부가 우선 대화 재개를 통한 해법 논의(50.7%) 및 관광 재개(13.0%) 등의 적극적인 관광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성향별로는 중도와 진보 성향 전문가들은 절반 이상이 우선 대화 재개를 통한 해법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 과반수가 선행조치가 있기 전에는 관광 재개 불가라는 현 정부의 기본 입장 유지에 동조

금강산 관광 재개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정부가 재개를 허락하진 않지만 남북간 대화를 통해 개선 분위기를 조성해야	50.7%	45.0%	51.6%	55.6%
정부가 우선 관광 재개를 허락하고, 북한에 독점권 취소 철회를 요구해야	13.0%	0%	12.9%	27.8%
북한의 선행조치가 있기 전에 관광을 재개해서는 안됨	36.2%	55.0%	35.5%	16.7%

○ (남북 관계 개선 방안)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

- 전문가들은 쌀, 비료,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최우선 과제로 주문하면서도,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 재개 등 정치적 부문의 접근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치적 부문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강조
 - 경제적 부문에서는 방북 제한 조치의 해제 및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개성 관광의 재개를 강조
 -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남북 사회 문화 교류의 재개,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강조
- 전문가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하고 있음(16.9%)
 -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23.1%)과 중도 성향의 전문가들(19.6%)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최우선 과제로 지적

남북 관계 개선 방안	비중
쌀, 비료,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19.7%
남북정상회담 개최 추진	14.8%
조속한 6자회담 재개 추진	13.3%
방북 제한 조치의 해제 및 개성공단 정상화	11.8%
남북 사회 문화 교류의 재개	8.4%
이산가족 상봉 추진	7.9%
한미동맹의 강화 및 대중 외교 강화	7.4%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7.4%
특별히 추진할 정책 없음(현 상태 유지)	4.9%
5.24 조치의 해제로 남북교역(일반교역) 재개	4.4%

이해정 선임연구원(hjlee@hri.co.kr, 02-2072-6222)
 홍순직 수석연구위원(sjhong@hri.co.kr, 02-2072-6221)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¹⁾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달는 상태	20이하

1)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 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 회 · 문 화 · 인 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 주: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융자액의 합

< 부록 3 >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 (목적)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전문가 평가지수 산출을 위하여 지난 3개월 및 향후 3개월의 남북 관계 진단 및 전망

- (조사 시기) 2011년 4월 11일 ~ 4월 20일 (10일), 총 응답자 73명

2. 조사 내용

□ 남북 관계 분석 및 전망

1. 정치·군사 관계

1-1)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9.6	25.8
2. 그렇지 않다	56.2	38.7
3. 보통이다	28.8	25.8
4. 그렇다	5.5	9.7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2)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0	21.0
2. 그렇지 않다	49.3	41.9
3. 보통이다	24.7	21.0
4. 그렇다	15.1	16.1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

1-3)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0	49.2
2. 그렇지 않다	34.2	46.0
3. 보통이다	42.5	4.8
4. 그렇다	12.3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

1-4)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7	49.2
2. 그렇지 않다	23.3	41.3
3. 보통이다	54.8	3.2
4. 그렇다	16.4	6.3
5. 매우 그렇다	2.8	0
계	100	100

1-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8.2	41.3
2. 그렇지 않다	54.8	46.0
3. 보통이다	32.9	11.1
4. 그렇다	4.1	1.6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

1-6) (전망) 남북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6.8	7.9
2. 그렇지 않다	23.3	55.6
3. 보통이다	41.1	25.4
4. 그렇다	28.8	11.1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 경제적 관계

2-1)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1.9	42.9
2. 그렇지 않다	50.7	55.6
3. 보통이다	27.4	1.6
4. 그렇다	0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2)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1	9.7
2. 그렇지 않다	34.2	40.3
3. 보통이다	39.7	27.4
4. 그렇다	21.9	22.6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3)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8.2	50.8
2. 그렇지 않다	54.8	41.3
3. 보통이다	32.9	4.8
4. 그렇다	4.1	3.2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4)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5.1	12.9
2. 그렇지 않다	56.2	54.8
3. 보통이다	27.4	17.7
4. 그렇다	1.4	14.5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5.1	25.4
2. 그렇지 않다	60.3	54.0
3. 보통이다	23.3	15.9
4. 그렇다	1.4	4.8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6) (전망)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2.3	33.3
2. 그렇지 않다	27.4	46.0
3. 보통이다	45.2	17.5
4. 그렇다	15.1	3.2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3-1)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9.2	42.9
2. 그렇지 않다	52.1	49.2
3. 보통이다	23.3	6.3
4. 그렇다	5.5	1.6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2)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7.8	7.9
2. 그렇지 않다	60.3	52.4
3. 보통이다	20.5	28.6
4. 그렇다	1.4	11.1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3)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5.1	44.4
2. 그렇지 않다	47.9	49.2
3. 보통이다	34.2	4.8
4. 그렇다	2.7	1.6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4)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5.1	65.1
2. 그렇지 않다	54.8	30.2
3. 보통이다	26.0	3.2
4. 그렇다	4.1	1.6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5) (전망)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9.6	49.2
2. 그렇지 않다	26.0	47.6
3. 보통이다	43.8	1.6
4. 그렇다	20.5	1.6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